

2025년 대만고분자학회를 다녀와서

대만고분자학회의 정기 연차 학술 대회인 2025년 대만 고분자학회가 1월 15일부터 1월 16일까지 2일간 대만 타이중 (Taichung, 臺中市)시의 자오양 과기대학(Chaoyang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열렸다. 본 학회는 10개가 넘는 다양한 세션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한 세션으로 한국과 대만고분자학회에서 양국 간의 고분자학회 사이의 고분자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Trilateral Conference Itinerary on Modern Challenges in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주제로 한국·대만·일본 삼국 간 학술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한국고분자학회와 대만고분자학회의 2012년 MOU 체결 후, 매년 양국의 고분자 연구자들이 양국을 방문하며 양국의 고분자에 대한 연구교류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 국제 세션은 2025년에는 대만고분자학회의 초청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 고분자학회에서는 본부를 대표로 인하대학교 권용구 교수(한국고분자학회 회장), 광주과학기술원 윤명환 교수, 전라권역을 대표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지언 박사, 경상권역을 대표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봉훈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이원호 교수, 충청권역을 대표하여 충남대학교 송우진 교수가 참가해 한국고분자학회의 소개 및 최신 고분자 연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교류 세션에서는 한국·대만·일본에서 참가한 15명의 중견 및 신진 연구자들은 각각 30분과 20분동안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하였고 심도 깊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코멘트와 공동연구의 장으로 매우 활기찬 연구토론이 이뤄졌다. 삼국의 고분자 연구자들은 고분자 합성과 고분자 물리와 같은 기초적인 연구부터 고분자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세션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연구발표에서 자신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선보였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코멘트와 질의 응답으로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었다. 또한, 대만의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본 세션장에 참석하여 몇몇 학생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아서 발표를 들을 정도로 고분자 연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도 쉬는 시간 없이 열띤 교류로 대만에서 고분자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삼국에서 참여한 신진 연구자들은 서로의 연구테마와 결과를 공유하며 국제 공동 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국제학술대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번 학회는 연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만고분자학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인적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대만 과학기술대학교의 Jyh-Chien Chen 교수를 비롯한 현지의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의 환대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만찬과 배려들이 녹아 있었다. 학회 첫 날 저녁에는 대만고분자학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 삼국의 연구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을 선사하였다. 특히나, 대만 측 교수들의 악기 연주나 학생들의 노래와 무용은 매우 인상 깊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부를 기회를 주었는데, 어색함 없이 모두 앞으로 나와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 국경을 넘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글을 통해 초청 연구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한 대만고분자학회 관계자들과 중간에 소통을 힘써주신 한국고분자학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충남대학교 유기재료공학과 송우진〉



2025년 대만고분자학회에 참가한 한국고분자학회 회원들(왼쪽부터 윤명환, 이원호, 권지언, 권용구, 송우진, 김봉훈 교수).